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國 軍樂隊의 發展 方向에 關한
調查研究

- 海軍 軍樂隊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 教育專攻

賓 大 旭

2007 年 8 月

韓國 軍樂隊의 發展 方向에 關한 調查研究

- 海軍 軍樂隊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大 植

賓 大 旭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8 月

賓大旭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 年 8 月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Bands
-Focused on R.O.K. Navy Bands-

Bin, Dae-wook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Music Education.

200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Park, Soon-bang, Prof. of Music
Chang, Hong-yong, Prof. of Music
Hur, Dae-sik, Prof. of Music

August 2007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1) 한국 양악의 태동	1
2) 한국 군악대의 창설	1
3)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	3
II. 한국 군악대의 역사	4
1. 해방 이전의 군악대	4
1) 창설 배경	4
2)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6
3) 활동과 해산	7
4) 개화기의 군악대	9
2. 창군 이후 군악대	10
1) 육군 군악대	10
2) 해군 군악대	11
3) 해병대 군악대	15

4) 공군 군악대	16
5) 국방부 군악대	17
6) 경찰악대	18
Ⅲ. 한국 관악단과 군악대의 현 실태	19
1. 한국 관악단의 실태	19
1) 학교 관악단	19
2) 민간 관악단	20
2. 한국 군악대의 현 실태	21
1) 군악대의 기능	21
2) 모병현황	21
Ⅳ. 설문조사 및 통계	24
1. 설문대상	24
2. 문항구성	24
3. 연구 절차	38
4. 분석 방법	38
Ⅴ. 결과 분석	39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39
2. 모병제도와 만족도	41

1) 지원 동기	41
2) 군 생활 만족도	42
3) 모병제도의 만족도 및 문제점	43
4) 군 별 선호도	44
5) 실용음악 자원 활용	45
3. 군악대 운영	46
1) 행사 및 연주	46
2) 군악업무 운영실태	47
3) 외부강사 초빙교육	47
4) 부대시설 만족도	48
4. 군악 교육대 운영	49
1) 교육기간	49
2) 3군통합 교육대 운영	51
3) 군악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	52
5. 여군 군악대 창설	54
6. 군가 교육	56
1) 후반기 군가교육 실태	56
2) 군가에 대한 지식	57
3) 성악병 (군가지도병) 활용	58

VI. 결 론 및 제언.....	59
1. 요약	59
1) 모병제도와 만족도	59
2) 군악대 운영	60
3) 군악 교육대 운영	61
4) 여군군악대 창설	61
5) 군가교육	62
2. 주안점	63
3. 결론	64
참고문헌	67
국문초록	69
Abstract	71

표 목 차

<표 II-1> 군악 1개대 편성조직	5
<표 II-2> 편 성 악 기	7
<표 II-3> 미 해군 군악학교 유학자	11
<표 II-4> 순항훈련함대 군악대 파견 현황	12
<표 II-5> 해군 군악대 연혁	13
<표 III-1> 군악병의 연간 소요	22
<표 III-2> 06년 해군군악대 모병 현황	22
<표 IV-1> 군악대원용 설문지 문항구성	25
<표 V-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9
<표 V-2> 군악대 지원 동기	41
<표 V-3> 군악대원의 군생활 만족도	42
<표 V-4> 모병 제도의 만족도	43
<표 V-5> 군별 선호도	44
<표 V-6> 실용음악 자원 활용	45
<표 V-7> 연주회의 홍보 효과	46
<표 V-8> 군악업무 운영실태	47
<표 V-9> 부대 시설 만족도	48
<표 V-10> 복무기간 단축후 후반기 교육기간	50
<표 V-11> 3군 통합 교육대 운영	51
<표 V-12> 군악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	52
<표 V-13> 교관적임자	53
<표 V-14> 여군군악대 창설	54
<표 V-15> 여군군악대의 역할 및 성격	55
<표 V-16> 군악교육대의 군가 교육 실태	56
<표 V-17> 알고있는 신 군가의 수	57
<표 V-18> 군가지도병 활용	58

감사의 글

그동안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허대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베풀어 심사와 조언을 해주신 박순방, 장홍용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많은 도움과 수고를 다하여주신 해군 .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음으로 양으로 이해해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박준형 대장님, 유안옥 주임원사님, 예하 각 부대 대장님 및 선배 . 후배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강우현, 신경호 대장님께도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특히 논문에 많은 도움과 수고를 다하여준 정재엽 대원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해군 군악대는 1946년 4월 2일 창설 이래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업적에 찬사를 보내 드리며, 말단 수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여 18여년 세월동안 숯한 애환과 느낀 점을 이 논문에 담아봅니다. 한국 군악대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설익은 논문을 완결했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이 논문이 해군 군악대 발전과 우리나라 각 군 군악대 발전 및 나아가 한국 관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연구, 보완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학술적인 연구를 위하여 쓰여진 연구자의 사견임을 밝히며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인의 학업을 위해 헌신적인 내조와 사랑으로 보살펴준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들 하준 이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7년 8월 빈대욱 드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한국 양악의 태동

한국 양악의 역사는 19세기 즉 조선후기의 새 역사의 풍랑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의 찬송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젤러(Appenzeller)는 배재, 이화학당을 세워 신교육을 실시하였고 1886년에 찬송가 악보를 출판하기에 이르니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5선보의 최초이다.

교회와 군대에서 출발한 우리 양악의 역사는 해방 전 약소민족의 억압 속에서의 모방시대에서부터 해방 후 국민적 자각과 민족성의 추구라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까지 시대와 함께 변모하였으며 밴드음악도 변모되어졌다.

이 같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밴드음악은 군대는 물론 일반기관 및 직장에서 경축행사, 시가행진, 폭넓은 공개연주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봉사하고, 정서순화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한국 군악대의 창설

한국의 옛 군대는 북으로 신호를 주는 형태였고, 갑신정변(1884)을 전후하여 별기군에 처음으로 신호나팔과 북으로 편성된 곡호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군악대의 모체이다. 현재와 같은 정식 군악대는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 우리나라 전권 특명대사로 파견된 민영환이 귀국하여 고종 황제

에게 군악대의 창설을 건의함에 따라 광무 4년 1900년 12월 19일 칙령 제 59호에 의거, 정식 설치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의 해군 군악대장 출신이었던 에케르트(Franz Eckert)를 일본으로부터 초청하여 군악 복장과 악기를 갖추어 완전한 군악대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1905년 4월 을사조약 체결 후 한국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군악대는 일제의 비호아래 있게 되었고 에케르트(Franz Eckert)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욱더 극심한 일제의 압박으로 결국 1920년 초 비운의 해산을 맞게 되었다.¹⁾

그 뒤 1945년 창군과 더불어 국방 사령부 설치령이 선포됨에 따라 기틀이 마련된 군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각 군별로 군악대를 창설하게 된다.

3)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설되어 오늘날까지도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각 군 군악대(해군 군악대를 중심으로)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군악 교육대 운용 과 군악대 모병제도에 대하여 그 현실을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1) 해군본부, 「군악대 운용」, 1995, p2-12.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각 군 군악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악교육대와 모병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연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각 장의 연구 범위 및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제2장은 전문서적 및 기타 문헌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군 군악대의 역사와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제3장은 모병제도 및 교육제도의 현 실태 파악에 대한 내용이다.

제4장은 모병제도 및 군악교육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통계이다.

제5장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써 연구의 전반적인 요약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방안도 생각하였다.

II. 한국 군악대의 역사

1. 해방 이전의 군악대

1) 창설 배경

1876년 조선은 일본의 강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한일수교를 체결,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척사파와 개화파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개화파의 주장대로 1882년 5월 22일 한미조약이 체결되어 문호를 개방하고 선진문물들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곧바로 이듬해인 1883년에 주한미국공사관이 개설되었고 조선 정부도 최초로 보빙사(報聘使)를 미국에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와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 속에서 고종은 군대창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미국식 군대창설을 위해 미국정부에 군사교관파견을 요청하여 1888년 4월 4명의 군사교관이 미국으로부터 파견되어 서울에 부임하였고 조선군은 미국식 군사교육을 받게 되었다.²⁾ 그러나 군사적 근대화와 선진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취지와 이상은 좋았지만 정부의 군사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여 결국 군사개혁은 실현되지 못했다.

1894년 일제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청나라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일제의 노골적인 위협에서 살아 남기위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고종황제는 러시아 세력과 제휴하였고 러시아의 군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제에 대항하려 시도했다. 이에 많은 방해로 받은 일제는 장애물의 중심에 있는 민비를 살해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규모로 의병이 봉기하고 일제의 야만적인 행위에 항거하였다.

2) 유재훈, 「한국 군악대의 변천사에 관한 소고」,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4.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전권 특명대사로 민영환이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1896년 5월 6일)에 5명의 수행원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는 귀국길에 세계 각국을 6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견문하였고 귀국할 때 러시아의 군사교관인 포차타 대령을 비롯한 러시아 군 10명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³⁾ 곧바로 민영환은 군사개혁안을 건의하였고 즉각 채택되었으며 개혁안의 일환으로 서양나팔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것은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사배치와 군대지휘를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서양나팔의 도입은 후에 개화기군대의 곡호대의 시초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군악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선정부는 러시아로부터 군악기를 구입하여 한국 최초의 곡호대를 발족한다. 주로 나팔과 북 종류로 생각되는 군악기로 구성된 곡호대는 군사훈련 시 각종 호령과 구호를 통일화 하여 지휘계통을 수립하였고 설치 3년 후 1900년 12월 19일 칙령 제 59호에 의거, 정식으로 군악대가 설치되었다.

칙령에 따른 초기 군악대의 편성 조직은 다음과 같다.⁴⁾

<표 II-1> 군악 1개대 편성조직

관 등	직 명	인 원
1등 군악장	대 장	1
2등 군악장	부 장	1
부 참 교	1등 군악수	3
상 등 병	2등 군악수	6
병 줄	악 수	27
병 줄	악 수	12
참 교	서 기	1
계		51

이처럼 군악대 설치령은 광무4년(19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 관보로서 공포되었고 일반 신문에는 24일자로 발표되었다.⁵⁾

3) 상계서 p.4.

4) 이유선, 「한국양악 100년사」, 중앙대학 출판국, 1976, p65.

5)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음제, 1985, p177.

2)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

군악대 음악교사 초빙업무는 궁 내부에서 추진하여 당시 주한미국공사관 서기관 샌즈가 고문관으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군악대장을 역임한바 있는 에케르트(Franz Eckert)를 초빙하기로 결정한다. 에케르트(Franz Eckert)는 1852년 독일에서 태어나 프러시아 군악대에서 군악대를 지휘하였다. 1879년에는 일본에서 군악대 창설에 공헌을 하였고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본 군악대의 발전에 공헌, 더 나아가 일본의 서양음악 전수에 큰 공헌을 하여 190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고 독일로 귀국하였다.

그는 1901년 한국 땅을 밟았고 군악대 음악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한국에 서양음악이 뿌리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그는 고향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냈다.

당시 군악대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곡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우선 대한제국 애국가를 비롯한 일본, 영국, 미국 등 수교국들의 국가가 연주되어 국가적 의식행사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진곡, 일본 평상행진곡, 독일 평상행진곡, 결혼행진곡, 즉위행진곡, 기병행진곡 등 외국 악곡들이 대부분인 행진곡들을 연주하였다.

그밖에 각종 가곡과 춤곡 등을 연주하였다고 기록되어있어 그 당시 다양한 행사에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이만운, 「중보문헌비고」, 동국문화사, 1957, Vol. 103, p260.

3) 활동과 해산

에케르트(Franz Eckert)의 지도아래 대원들은 생전 처음 보는 서양악기들을 열정과 자부심으로 연습하였고 그 편성은 표와 같다.

<표 II-2> 편 성 악 기

구분	악기	수량
목관악기	Piccolo	1
	Flute	2
	Oboe	2
	Clarinet	7
	Eb Clarinet	1
	Alto Clarinet	1
	Bass Clarinet	1
	Bassoon	2
	Horn	4
	Alto Horn	4
	Soprano Saxophone	1
금관악기	Trumpet	5
	Cornet	2
	Euphonium	4
	Tenor Trombone	3
	Bass Trombone	1
	Tuba	1
	Sousaphone	1
타악기	Bass Drum	1
	Side Drum	1
	Cymbal	1
	Tambourine	1
	Triangle	1
	Castanet	1
	Bell	1

당시 유일한 영문 잡지였던 The Korea Review는 1910년 9월호에 다음과 같이 평을 했다.⁷⁾

“이번 축하 연회에는 많은 내외의 귀빈이 모였는데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7일 아침에 궁정에 참석한 외국 손님들에게 특히 기억할만한 순서는 새로 조직된 군악대의 첫 출연인 것이다. 이 밴드는 에케르트(Franz Eckert)의 지도로 훈련되었는데 모두 27명의 대원으로 단지 4개월여의 연습으로 외국의 악기들을 그렇게 훌륭히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외국 손님들에게는 경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에케르트(Franz Eckert)와 대원들의 열심 있는 연습에 그 공을 돌려야 할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 전체의 이 악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 또한 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날씬한 제복, 번쩍번쩍하는 악기들, 정확한 박자 흐르는 듯한 리듬과 하모니 어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정말 예상외의 놀라운 효과를 올렸으며 청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박수갈채는 그칠 줄을 몰랐으며 이대로만 나간다면 얼마 안가서 이 악대는 동양에서 경쟁을 할 다른 악대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국 최초의 군악대는 날로 발전하게 되지만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후, 예산이 삭감되고 연주활동도 억압 받게 되어 1920년 초 비운의 해산을 맞게 되고 그 후 한국인 지휘자 백우용과 대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순수 민간단체인 경성악대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1930년에 해체 되었다.

7) 전용길, 「한국브라스밴드의 현실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7.

4) 개화기의 군악대

일제에 의해 군악대가 폐지되었지만 관 내부로 이속시켜 명맥을 유지하여 군부 소관 전 군악대원으로 제실 음악대로 개편조직 하였다. 그러나 곧 제실음악대는 장례원 소속으로 이관되어 운용되었고, 에케르트(Franz Eckert)가 제실음악대를 그만두고 그 후임으로 백우용이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조차 예산의 삭감과 인원감축으로 인해 해산의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1915년 3월 해산되게 된다. 군악대에서부터 제실음악대를 거치는 동안 백우용과 같은 일등군악장을 비롯하여 강홍준, 김창희와 같은 명 지휘자가 나오게 되었다.⁸⁾

제실음악대가 해산하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미국인 선교사 스미스박사와 몇몇 민간인 유지들의 도움, 그리고 지휘자 백우용과 대원들의 열성으로 경성악대라는 순수 민간자영단체가 조직되었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그 명맥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적지 않은 경비충당 문제로 대원들은 각종 연주활동을 계속 하였고 때문에 당시 시민들 중에는 경성악대까지 군악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⁹⁾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였다.

1919년 11월 18일 제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 활동을 점점 활발히 하여 6월부터는 목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난과 축음기의 보급으로 인해 나빠진 음악활동여건, 민중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1930년 결국 해산되고 만다. 경성악대소유의 악기 중 일부는 휘문학교, 배재학교 등에 기부되어 학교밴드부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학교 양악 교육의 초석이 되었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광복 후 창군과 더불어 창설된 각 군 군악대의 핵심 요원이 된다.

8) 장사훈, 「한국음악사」, 세광출판사, 1988, p482.

9) 「옥당최남선전집」, 현암사, 1973, Vol. 12, p476.

2. 창군 이후 군악대

1) 육군 군악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한국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해방이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되고 1945년 11월 13일 국방 사령부 설치령이 선포됨에 따라 군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어 남조선 국방 경비대 제 1연대가 창설되었다. 이에 군악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미군 브라운 대위의 주선과 협조로 군악대 창설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1일 경기도 양주군 태능(현 육군 사관학교)에서 당시 국방 경비대 군악대가 창설되었다. 초기 군악대장은 당시 창설에 공이 많은 김계원 참위(현 소위)였고 편성은 40인조였다. 1946년 8월 15일 광복 후 처음 맞는 광복절 행사에 참가하여 서울시내 시가행진으로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¹⁰⁾

1950년 6.25사변 당시에는 서울을 떠나 대전, 전주, 순창, 광주, 진주, 부산까지 후퇴하면서 반대로 국군의 북진 시에는 원산, 함흥, 평양까지 입성하였으며 씩씩하고 용감한 시가행진으로 국민들은 물론 이북동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전쟁 중의 군악대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으며 전쟁의 공포로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전쟁 기간 중에 육군의 각 사단에 군악대가 창설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다. 현재도 군악대는 부대 내의 각종 의식행사를 비롯한 장병 위문공연 및 대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전통음악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1968년 9월 21일 육군 국악대가 창설되었다. 국악대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복원과 계승에 앞장섰으며 후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육군 군악대는 오늘날에도 다양하고 활발한 군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 밴드음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0) 전용길(2004), 전계서, pp.17-20.

2) 해군 군악대

1946년 4월 2일 지방 음악인 박명원, 박태현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 악기를 가지고 경남 진해에서 조직된 것이 해군 군악대의 모체이며 그 후 인천에서 체제정비를 거쳐 광복절 행사에 첫 출동하였다.¹¹⁾ 초대 군악대장으로는 병조장 이었던 김석창씨가 부임하였고 동년 9월 경남 진해로 이전, 진해기지 군악대로 명명되었다. 그 후 서울의 해군 작전본부, 태릉 육군 군악대 병사, 남산 구 경성신사 등 몇 군대를 이전하다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해군 군악대로 정식 출범하고 한 달여 뒤인 9월 22일에 구 일본 해군 무관부 건물로 이전한다.

1949년 4월 15일에는 해군 군악학교를 설치하고 초대 교장으로 남궁요열 중위가 부임하였다. 1960년에 해군 군악교육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군악교육대는 해군 군악대가 자랑하는 신병 주특기 교육 과정이다. 개인 전공 실기연습을 비롯하여 음악이론, 청음 시창, 사보, 행진법, 제식훈련 등, 신병들에게 체계적인 군악 교육을 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1994년 이후 교육과정이 8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악 교육대는 전 군 중 해군만이 유일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해군 군악학교에서 음악이론과 연주기법을 전수한 유능한 교관들의 지도로 우수한 군악 요원들을 배출하여 해군 군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56년부터 1963년까지 6명의 간부들이 미국 해군 군악학교에 유학을 갔으며 이들은 귀국 후 군악대는 물론 우리나라 관악분야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

<표 II-3> 미 해군 군악학교 유학자

계 급	성 명	유 학 기 간	과 정
소 위	이 교 숙	1956. 07. 07 - 1957. 09. 23	악장 후보생
중 사	허 원 무	1956. 07. 07 - 1957. 09. 23	악장 후보생
중 사	장 익 환	1960. 12. 15 - 1962. 03. 22	악장 후보생
중 사	황 문 규	1960. 12. 15 - 1962. 03. 22	악장 후보생
중 사	이 연 식	1963. 08. 30 - 1963. 11. 07	악기 수리 과정
중 사	김 선 팔	1963. 08. 30 - 1963. 11. 07	악기 수리 과정

11) 해군본부(1995), 전계서, p.2-17.

1955년부터 해군 군악대는 매년 순항훈련함대 군악대를 파견, 현지 의식행사 및 교민 위문 연주회를 실시하여 각 기항지 국가마다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교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깝게는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멀리는 아프리카, 미주, 멕시코, 유럽, 동구권, 러시아까지 군사외교적인 일익을 담당했으며 최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순항훈련함대 군악대 파견 현황¹²⁾

년도	지역	기간	방문국
1995	세계일주	'95.08.02 - '95.12.20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이태리, 프랑스, 미국, 멕시코 등 15개국
1996	동남아/대양주	'96.09.16 - '96.12.16	러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2개국
1997	미주/중남미	'97.09.04 - '97.12.16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북마리아나 등 8개국
1998	동남아	'98.10.22 - '98.12.28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8개국
1999	동남아/대양주	'99.10.29 - '00.01.18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솔로몬,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
2000	미주/중남미	'00.10.09 - '01.02.05	러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호주, 필리핀 등 10개국
2001	아시아	'01.10.22 - '02.01.14	중국, 베트남, 태국, 몰디브, 인도, 브루나이 등 10개국
2002	미주/중남미	'02.10.08 - '03.01.30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칠레, 에콰도르 등 9개국
2003	동남아/대양주	'03.10.13 - '04.01.16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미국 등 13개국
2004	동북아/북미주	'04.09.22 - '04.12.29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2005	아시아/유럽	'05.05.07 - '05.09.09	싱가포르, 대만, 이집트, 포르투갈, 영국, 독일, 이태리, 그리스, 인도, 중국 등 12개국
2006	미주/대양주	'06.08.30 - '06.12.22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 9개국

12) 이양희, 「해군사관학교 교무처 자료」, 2007.

1974년부터는 지금껏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연주회를 매년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여 정기 연주회로 개최하여 수준 높은 연주와 다양한 시도로 많은 찬사를 받아왔으며, 1982년부터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회연주를 실시하여 음악문화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지방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 속에 해군을 홍보하고 민군 친선 및 유대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국가 중대 행사에서 참가국 160여 개국의 국가와 행진용 곡들을 녹음함으로써 그 실력을 국내 . 외에 과시하였고, 98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2002 한 . 일 월드컵, 2002 부산아시안게임, 제주국제관악제, 원주따뚜, 진해국제군악 . 의장 페스티벌 참가, 각종 국제대회, 정부주관 행사, 민간단체 행사, 주한외국인 행사, 국군의 날 식전행사 및 기념식, 시가퍼레이드 등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장병 사기진작은 물론 대 국민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해군 군악대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5> 해군 군악대 연혁¹³⁾

연도	내용
1946. 04. 02	해군 군악대 창설(박명원, 박태현)
1947. 06. 00	진해 → 서울 이전
1948. 08. 15	해군 군악대 정식 출범(정부수립)
1949. 04. 15	해군 군악학교 설치(초대교장 : 중위 남궁요열)
1949. 10. 22	해군 군악학교 특과 1기 입교(35명)
1949. 11. 04	해군 군악학교 보통과 1,2기 입교(2년 교육)
1950. 06. 27	해군 군악학교 수업중지, 군악대 해산(6.25사변)
1951. 01. 10	해군 군악학교 수업 재개
1954. 04. 06	해군본부 서울 이전
1954. 08. 00	해군 군악학교 교육과정 26주 단축(2년 → 26주)
1955. 06. 15	순항훈련함대 군악대 파견 실시
1956. 11. 01	행정 참모실 군악대 창설
1959. 12. 19	해군 교육단 신병훈련소 나팔대 창설
1960. 09. 01	해군본부 서울 대방동 이전

13) 해군본부(1995), 전계서, p.2-18.

1968. 09. 16	해군 군악교육대 교과과정 15주 단축(26주 → 15주)
1981. 08. 28	해군 2함대사령부 군악대 창설
1986. 02. 01	통제부 군악대에서 제7기지 전단 군악대로 편입
1986. 07. 01	해군 교육사령부 군악대 승격
1987. 09. 18	해군 1함대 사령부 군악대 창설
1988. 12. 07	해군 3함대 사령부 군악대 창설
1993. 06. 12	해군 본부 계룡대 이전(서울 대방동 → 대전 계룡시)
1994. 02. 04	군악 교육 과정 8주 단축(15주 → 8주)
1998. 12. 01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군 지원부 군악대 명칭 변경
1999. 09. 01	해군 목포 방어사령부 군악대 창설
2001. 10. 15	해군 제주 방어사령부 군악대 창설

현재 해군 군악대는 해군지원부(해군본부)를 비롯 진해기지사령부, 교육사령부, 1함대사령부, 2함대사령부, 3함대사령부, 목포방어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의 8개 군악대가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군내 . 외 의식행사, 대민지원 및 공개연주회 등을 통해 해군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해병대 군악대

해병대 군악대는 1957년 8월 25일 육군 군악 장교로 근무하던 3사단 군악대장 안진영 중위가 해병대 대위로 계급 조정되며 창설되게 되었다.

초대 대장인 안진영 대위는 1963년 8월 15일 전역하였고 해병대는 국방부 훈령 제 157호에 의거, 해군에 통합되었다가 1990년대에 다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있듯 힘들기로 유명한 해병대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적 위로를 위하여 해병대 군악대는 해병대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1사단, 2사단의 3개 군악대가 운영되고 있다.¹⁴⁾



14) 전용길(2004), 전개서, p.23.

4) 공군 군악대

공군 군악대는 1951년 6월 육군 제 3사단 군악대장으로 있던 정호상 소령, 김석호 이등중사의 군악병 모병을 모체로 하여 1951년 10월에 대구에서 발족하였다.

1952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악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1954년 1월 1일 서울 수복과 함께 공군본부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군악대가 공군본부 직속 독립대대인 공군 군악대로 개편되었다. 1957년 5월 15일 공군 교향악단 창설을 시작으로 1960년 8월 1일 공군 기술 교육단 205 군악 파견대 창설, 1980년 8월 1일 군수사령부 501 군악 파견대 창설, 1984년 5월 1일 공군 사관학교에 군악대를 창설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도 매년 정기연주회와 각종 대내·외 행사, 대민행사, 각종 관악제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군민 유대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공군 군악대는 현재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작전사령부의 5개 군악대를 운영하고 있다.¹⁵⁾

15) 상계서, p.24.

5) 국방부 군악대

국방부 군악대는 1989년 5월 11일 대통령령 제 12707호에 의하여 국방부 근무 지원단 창설제정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 창설되었다.¹⁶⁾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설물들을 일부 개조,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악대, 국악대, 팡파르대로 편제되어 각종 국가주요행사를 비롯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고 타군 군악대와 달리 팡파르대가 편성되어있어 국가 중요행사나 외국의 국민급 인사 방한 시 환영 및 환송 연주를 하고 있다.

주로 정부 각 부처의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연주단체와 연계하여 실력향상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다.

매년 개최하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민군 유대강화 및 새로운 장르의 시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악대의 운영으로 우리음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문화사절단 역할도 하고 있으며 국위 선양의 일선에서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16) 상계서, p.25.

6) 경찰악대

경찰악대는 1946년 4월 당시 경기도 경찰국장 장수택에 의해 창설되었다. 초창기의 대원으로는 구 군악대원과 고려교향악단원 및 민간 관악연주단체 단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그 수는 약 37명으로 현 후암동 소재 병무청 자리에 경기도 경찰악대를 설치하였다.

1946년 9월 서울 수도경찰청이 설립되면서 나팔대를 조직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립경찰 창립과 동시에 각 지방에 경찰악대가 생겨났다.

수도경찰악대는 1954년 8월 15일 내무부 치안국 악대에 소속되어 국립 경찰악대로 명칭을 바꾸었고 1970년에는 치안국 소속이었던 악대가 서울시 경찰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시경찰악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경찰악대는 서울지방 경찰청을 비롯, 경찰대학, 부평종합학교, 해양경찰청, 강원지방 경찰청, 수안보 종합학교, 광주지방 경찰청, 부산지방 경찰청, 제주지방 경찰청의 9곳 악대를 운영하고 있다.¹⁷⁾

17) 상계서, p.26.

Ⅲ. 한국 관악단과 군악대의 현 실태

1. 한국 관악단의 실태

1) 학교 관악단

학교 관악단은 1902년 연희전문학교에 현제명선생의 지도아래 처음 조직되었으며 1917년에는 선교사로 활동하던 모우리(E.M.Mowry) 박사가 숭실학교에 취주악대를 설립하였다.

경성악대의 해산 시 72점의 악기를 기증받은 휘문학교, 배재학교, 경신학교, 중등학교에 밴드가 조직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며 각종 응원행사에 참가하였으며 1930년에는 이들 밴드가 연합악대를 조직하여 학교밴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해방 후에는 1946년 문교부 주최 음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경연대회가 열려 우리나라 학교밴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1949년 9월 28일 대통령 명 제 186호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제정 공포된 후 수많은 학교밴드가 조직되어 절정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교 관악대는 학칙 개편이 된 1952년 학제가 6.6.4.제도에서 6.3.3.4.제도로 중 . 고교가 분리됨으로써 입시경쟁을 불러오게 되었고 자연히 밴드발전이 어려움을 주게 되어 서서히 침체되기에 이른다. 열정 있는 유능한 지도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밴드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중 . 고교 평준화로 인해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시위주의 교육방향에서 많은 밴드가 해체되고 있다.

2) 민간 관악단

1919년 창설된 이왕직악대는 1920년 스미스(Smith) 박사의 주선으로 학교밴드인 경성악대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영단체가 되어 활동하였다가 1922년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산되었다.

1946년 10월에는 전국취주악연맹이 조직되어 관악악보출판 강습회 및 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시립취주악단이 40인조로 편성 조직되어 활동하다가 6.25 사변 때 해체되었다.¹⁸⁾ 본격적인 관악단체의 활동은 1973년 9월29일 서울에서 한국관악지도자회가 조직되어 매년 전국 시·도에서 순회하면서 대한민국관악제 경연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지도자연수회, 청소년관악연수회, 해외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한국관악협회, 한국관악인총연합회, 한국대학밴드협회, 한국마칭연맹 등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각 시·도립 교향악단과 민간교향악단, 시립관악단 각종 브라스밴드, 직장밴드 등이 운용되고 있다.¹⁹⁾

2. 한국 군악대의 현 실태

18) 상계서, p.32.

19) 장성곤, 「한국 관악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악인총연합회, 1999, pp.24-25.

1) 군악대의 기능

군악대는 부대 규모에 따라 인원 및 수행하는 임무가 다르고 자연히 편성도 달라진다. 대부분 평상시에는 부대 내의 의식행사 악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장병 정서순화를 위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음악적인 기능으로 분류하면 Field Band(의식밴드), Concert Band(연주밴드), Combo Band(소규모 밴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원편성이 적은 예하부대에서 Concert Band(연주밴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각각 상황에 맞는 인원편성과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지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이다.

2) 모병현황

군악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대원을 모병을 통하여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대원은 일련의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해군의 경우는 해군 군악 교육대의 후반기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자대에 배치 받아 행사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 각급부대의 편성인원에 맞는 전공자가 모병되어 배치를 받아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중·고교 관악대의 위축을 주축으로 크고 작은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필요인원 모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악병의 연간 소요인원과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군악병의 연간 소요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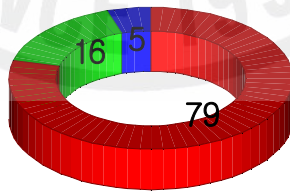
구분	소 요				가 용 자 원		
	육 군	해 군	공 군	경 찰	음 대	고교밴드	기타
	1,380	440	166	397	300	330	200
계	2,388				830		

<표 III-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요인원에 비해 가용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모병자원의 부족현상은 실무부대의 정상적인 운용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존속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2006년 해군군악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군군악대의 현재 편성인원 비율은 9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선발인원과 응시자, 합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표 III-2> 2006년 해군군악대 모병 현황

모병현황



■ 불합격 ■ 입대자 ■ 비입대자

20) 전용길(2004), 전계서, p.40.

21) 해군본부, 「해군군악대 회의안건 자료」, 2006.

2006년 해군 군악대 모병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시자 중 79%가 불합격하여 응시자의 상당수가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병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합격한 21%중 5%가 입대하지 않아 전체응시자의 16%만이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병부족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병제도의 문제점과 군악교육대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IV. 설문조사 및 통계

1. 설문대상

본 설문은 해군·해병 군악대에 근무하고 있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원은 203명이고 문항 수는 총 65문항이다.

2. 문항구성

본 연구의 설문작성은 연구자의 오랜 경험과 선행된 브라스밴드, 군악대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의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군악대원용 설문지 문항구성 내용과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군악대원용 설문지 문항구성

내 용	세부사항	문항번호
응답자의 일반사항	성별	1
	연령	2
	근무지	3 - 4
	악기경력	5
	학력	6
	전공 여부	7
	모병 실태	모병 지역
지원 동기		9
현 제도의 만족도		10 - 14
군별 선호도		15 - 16
실용음악 자원 활용		17 - 18
군악대 운영	행사 및 연주	19 - 23
	군악업무 운영실태	24 - 26
	외부강사 초빙교육	27
	부대시설	28 - 30
군악 교육대 운영	교육기간	31
	교육대의 필요성	32 - 36
	3군 통합 교육대 운영	37 - 39
	교육과목	40 - 41
	현 운영의 문제점	42 - 46
여군 부사관 운영	여군 부사관의 필요성	47 - 50
	여군 군악대 창설	51 - 52
군가 교육	군가교육 실태	53 - 56
	군가에 대한 지식	57 - 58
	훈련소의 군가교육 및 보급	59 - 62
	성악병 활용 및 배치	63 - 65

<한국 군악대의 발전 방향에 관한 군악대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군복무에 날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 군악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악대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설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시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 여러분께서 작성한 설문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 내용을 작성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부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국립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주학 박사 허대식

연구자 : 국립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빈 대 옥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만20-22세 ② 만23-25세 ③ 만25-30세 ④ 만30세 이상

3.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군은?

-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해병대 ⑤ 경찰

4.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부대는?

- ① 해지부군악대 ② 진기사군악대 ③ 교육사군악대 ④ 1함대군악대
⑤ 2함대군악대 ⑥ 3함대군악대 ⑦ 목방사군악대 ⑧ 제방사군악대
⑨ 기타()

5. 현) 부대에서 맡은 악기의 경력은?

- ① 1년 미만 ② 2-3년 정도 ③ 3-5년 정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교졸업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

7. 귀하의 군 입대 전 음악 전공여부는?

- ① 비전공, 취미로 음악을 하였다.
② 중 . 고교 관악대에서 활동하였다.
③ 음악대학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하였다.
④ 기타()

8. 귀하의 군악대 모병지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대전 ③ 부산 ④ 진해 ⑤ 동해 ⑥ 기타()

9. 귀하의 군악대 지원 동기는?

- ①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 ② 평소에 군악대에 관심이 많았다.
- ③ 주변의 권유에 의해
- ④ 홍보물 / 홍보활동을 접하고서
- ⑤ 군악대의 연주회를 보고
- ⑥ 기타()

10. 현) 군악대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족 ⑤ 타 병과로 옮기고 싶다
- ⑥ 타군 군악대에 가고 싶다

11. 10번 문항 ③,④,⑤,⑥번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 군악모병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합리적이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문제가 있다 ④ 기타()

13. 12번문항의 군악모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열해주세요.()

- ① 고교 관악대 감소로 금관악기 전공자 지원 저조
- ② 모병홍보활동의 홍보부족
- ③ 타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2개월 길기 때문에 해군지원 기피
- ④ 기타()

14. 모병제도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선순위를 표기해주세요.()
- ① 모병 홍보활동 확대(고교 관악대 및 음악대학 방문연주)
 - ② 각종 혜택 부여
 - ③ 모병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④ 인터넷을 통한 모병지원 기능개선
 - ⑤ 지속적인 인원 증원 건의
 - ⑥ 고교 관악대와 음악대학과의 긴밀한 공조와 자매결연 적극 시행
 - ⑦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15. 다시 지원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해병대 ⑤ 경찰
16. 15번 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 캄보밴드 인력(피아노, 기타, 성악 등)의 1인 2악기 습득을 통해 희소악기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그저 그렇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8. 17번 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 귀하께서 자대 전입 후 행사에 제대로 투입되기까지 걸린 적응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개월 ② 3-5개월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 이상 ⑤ 기타()

20. 연간 행사 횟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① 100건 미만 ② 100-200건 ③ 200-300건
 ④ 300-400건 ⑤ 400-500건 ⑥ 500건 이상
21. 연간 연주회 횟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① 1-5건 ② 5-10건 ③ 10-20건
 ④ 20-30건 ⑤ 30건 이상 ⑥ 기타()
22. 군악대 홍보적인 차원에서 연주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그저 그렇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23. 22번 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24. 군악대 운영(업무)이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불만
 족
25. 24번 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 군악대 운영(업무)에 가장 지장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① 각종작업 ② 자원부족 ③ 과도한 행사지원 ④ 잦은 집합 및 교육
 ⑤ 기타()
27. 해지부(해군본부) 군악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 강사 초빙 교육이
 귀 부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불필요 ④ 잘 모르겠다.

28. 귀하가 소속된 부대에 갖추어진 시설물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합주실 ② 앙상블실 ③ 개인 연습실 ④ 음악 감상실 ⑤ 행사피복 정비실
⑥ 휴게실 ⑦ 악기실 및 악보실 ⑧ 녹음실 ⑨ 방음시설
29. 귀하가 소속된 부대에 갖추어진 시설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0. 29번 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31. 현) 군악교육대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주 ② 4주 ③ 6주 ④ 8주 ⑤ 기타()
32. 현)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33. 32문항의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
34. [해군]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다면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기간은 어느 정
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주 ② 4주 ③ 6주 ④ 8주 ⑤ 기타()
35. [해군] 군복무 기간이 단축이 되면 귀하께서는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36. 34문항의 후반기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37. 34문항의 후반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38. 군악교육대를 육, 해, 공군 3군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39. 37문항의 3군을 통합하여 후반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40. 37문항의 3군을 통합하여 후반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41. 군악교육대의 후반기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과목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세요. ()

① 전공실기(악기연주) ② 이론 및 화성법
③ 시창, 청음 ④ 사보 및 컴퓨터 피날레 작업
⑤ 행진법 및 제식훈련 ⑥ 음악사
⑦ 음악 감상 ⑧ 기타()

42. 현) 군악교육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주세요.

()

- ① 교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 능률 저하
-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 미흡
- ③ 장기간 교육으로 인한 교육생 근무 의욕 저하
- ④ 실무부대와 교육부대 분리교육
- ⑤ 관악 전공자 인력 부족으로 실무부대 배치에 어려운 실정
- ⑥ 기타 ()

43. 군악교육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육생 고학력증가로 인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 ② 충분한 예산확보로 복지향상과 교육여건 개선
- ③ 교관 인력 증원확보
- ④ 안정적 인력획득 여건 확보(모병인원의 관별력적용)
- 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기실무 배치 검토
- ⑥ 기타 ()

44. 후반기 교육이 실무에서 충분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45. 44문항의 후반기 교육이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6. 군악교육대의 교관 및 강사로 적합한 사람은?

- ① 자체 교관 및 강사
- ② 인가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관
- ③ 유명 연주자 및 교수 급 강사
- ④ 음악대학 및 대학원 전공자
- ⑤ 기타()

47. 현) 육, 해(해병), 공군 군악대에서 여군부사관 운영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반대 ④ 매우 반대

48. 47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49. [해군] 음대 전공생이나 고교 관악대에 남성 못지않게 여성자원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여군부사관 군악대를 창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잘 모르겠다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50. 49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51. [해군] 여군부사관 군악대를 창설하게 되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

- ① 해지부(대전) ② 진기사, 교육사(진해) ③ 1함대(동해) ④ 2함대(평택)
- ⑤ 3함대(부산) ⑥ 목방사(목포) ⑦ 제방사(제주) ⑧ 기타()

52. [해군] 여군부사관 군악대의 역할 및 성격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홍보 사절단으로서의 역할
- ② 국내, 외 연주 홍보활동
- ③ 군내 의전 및 의식행사지원
- ④ 기타()

53. 후반기교육에서 군가 교육이 올바르게 교육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된다 ② 잘 되고 있다 ③ 잘 안되고 있다 ④ 매우 안되고 있다

54. 53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55. 해군 .해병 부대에서 군가가 올바르게 불리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된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잘 안되고 있다 ④ 매우 안되고 있다

56. 55문항에 해당되는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57. 귀하께서는 군가를 몇 곡 알고 계십니까?

- ① 다섯 곡 이상 ② 두세 곡 ③ 한곡 ④ 잘 모른다.

58. 귀하께서는 신군가를 몇 곡 알고 계십니까?

- ① 다섯 곡 이상 ② 두세 곡 ③ 한곡 ④ 잘 모른다.

59. 훈련소의 군가교육 효과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군가가창을 통해 부대를 단결하고 사기진작 및 정서 순화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며 지속적으로 불리어져야 한다.
- ② 전문 성악병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
- ③ 훈련교관 교육으로 만족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60. 귀하의 부대에서 군가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간부에 의해서 군가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② 전문 성악병에 의해서 군가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③ 선임에 의한 구전으로 불리어지고 가르친다.
- ④ 전혀 안 되고 있다.
- ⑤ 기타 ()

61. 군가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① 전문 교육(교관)의 부재
- ②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 ③ 군가가 재미없어서
- ④ 기타()

62. 귀하께서 생각하는 군가교육(보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써 주십시오.

()

63. [해군. 해병] 훈련소에 군가 지도병(성악병) 인가를 내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잘 모르겠다 ③ 반대 ④ 기타()

64. 62문항에 반대한다면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65. 62문항에 찬성한다면 지도병(성악병)을 어느 정도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신병훈련소 급 및 해군사관학교 각 1명 ②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06년 10월 2일부터 제작하여 작성 후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부대장 승인 후 참모총장 명에 의거 2007. 02. 01부터 2007. 03. 31까지 각 부대 군악대에 우편으로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4.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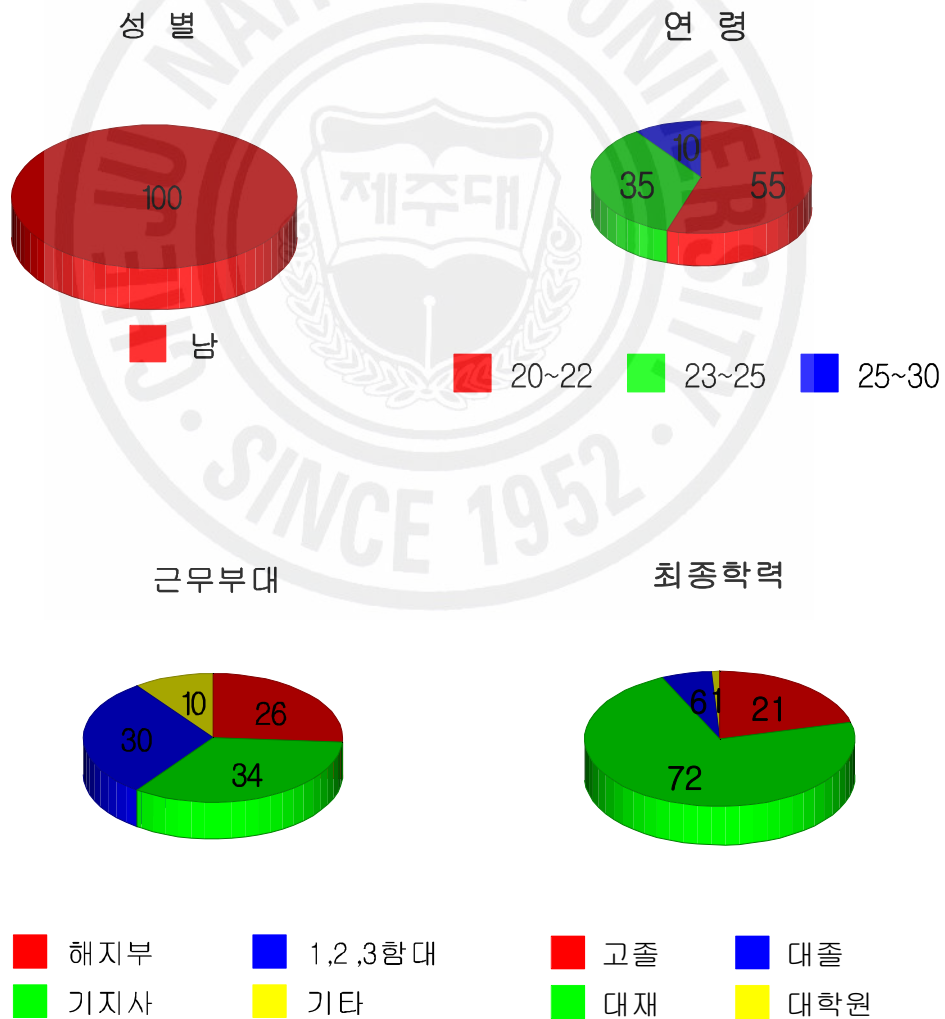
수집된 설문결과를 각 문항별로 빈도를 산출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거의 빈도가 없거나 극소수인 문항은 제외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항을 합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하였으며 환산된 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생각하는 형식의 다양한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였다.

V. 결과 분석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설문 조사에 참여한 설문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V-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V-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군악대원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55%가 20세-22세, 35%가 23세-25세로 20대 초반의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약 10%의 소수의 대원들이 30세에 가까운 나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참가자의 소속부대로는 진해 기지사령부 군악대가 34%, 해군지원부 군악대가 26%, 1,2,3함대 사령부 군악대가 30%, 기타 예하 부대가 10%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과 악기전공경력을 살펴보면 72%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의 설문참가자들이 악기경력 5-10년의 음악대학교 재학 중인 전공자로 나타났고 21%의 적지 않은 수의 대원들이 경력 3-5년의 고졸, 고등학교 관악대 출신으로 나타나 군악대 모병 자원의 대부분이 음악대학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관악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지만 20%의 대원이 입대 전 전공과 군대에서의 주특기가 다르다고 응답하여 모든 대원이 전공악기만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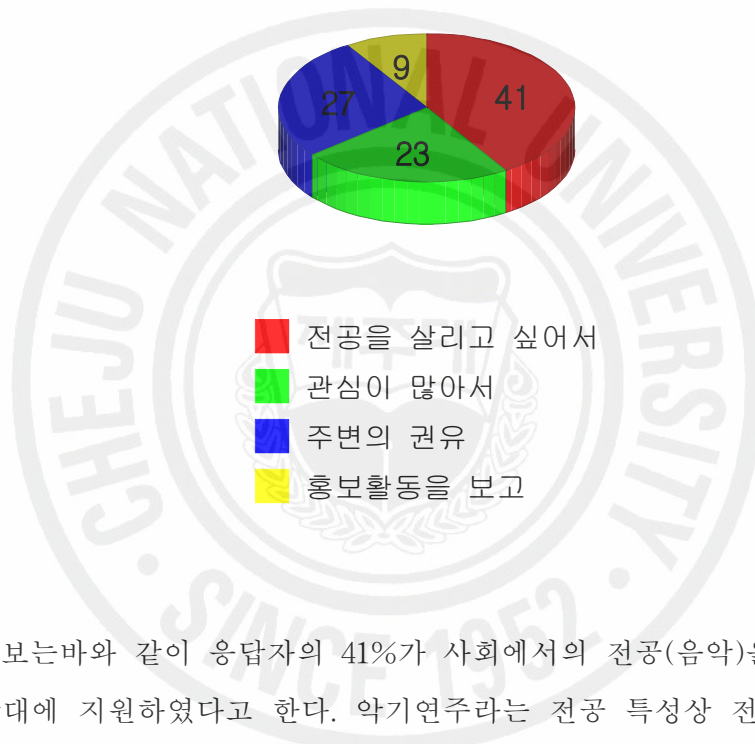
군복무기간에도 개인 전공악기를 계속 연습하여 특기와 적성을 살린다는 군악대 지원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필시 모병의 마이너스 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원인은 줄어드는 모병현황으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상황의 분석과 해결점 모색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2. 모병제도와 만족도

1) 지원 동기

<표 V-2> 군악대 지원 동기

지원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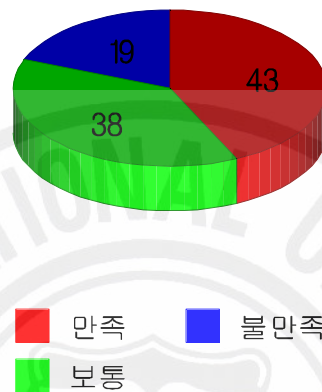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의 41%가 사회에서의 전공(음악)을 살리기 위해서 군악대에 지원하였다고 한다. 악기연주라는 전공 특성상 전공과 관계없는 군 복무는 실력저하는 물론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전공자들이 군악대에서 군 복무를 하기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23%가 평소에 군악대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27%가 주변의 권유로 지원, 그리고 각종 홍보물, 연주회 등을 접하여 군악대에 지원하게 된 응답자도 9%로 나타났다.

2) 군 생활 만족도

<표 V-3> 군악대원의 군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



앞 절에서 분석된 바, 대부분의 군악대원들은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군 복무를 하기 위해 군악대에 지원하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의 군악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생활을 하며 전공과 특기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를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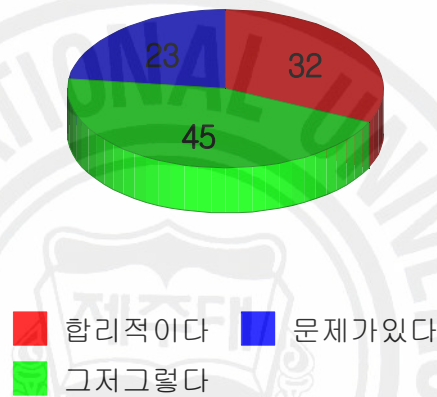
응답자의 43%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지원 동기와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쁘지 않다 혹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8%로 만족도는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19%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불만족 혹은 타군으로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잡은 작업(군악업무와 상관없는 작업) 등으로 연습시간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여 제대로 연습할 수가 없다' 등 주로 전공과 관계없는 작업과 시설의 부재로 전공악기를 연습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꼽았다.

3) 모병제도의 만족도 및 문제점

<표 V-4> 모병 제도의 만족도

모병제도 만족도



현 모병제도에 대한 군악대원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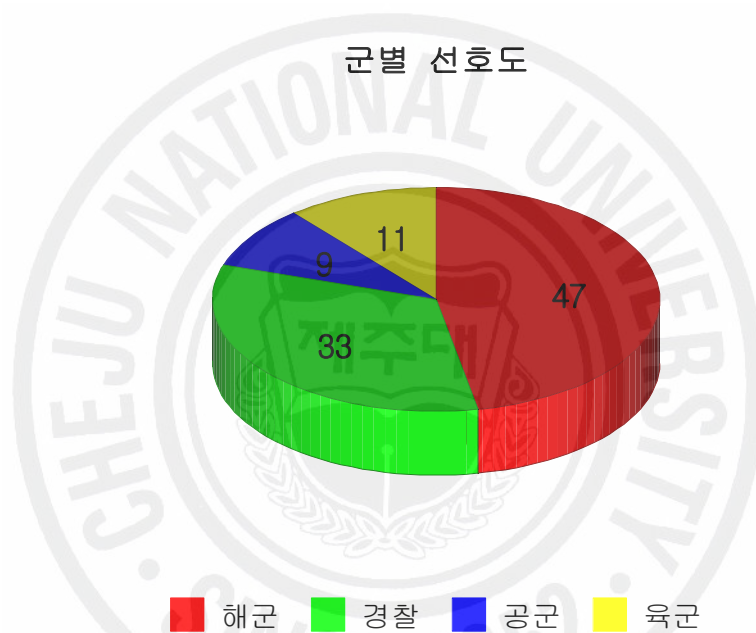
45%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족할 만큼 합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 반면 현 모병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현 모병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을 살펴보면 ‘고교 악대부 감소로 금관악기 전공자 인원 지원 저조현상’ ‘모병 홍보활동의 부족’ ‘해군의 복무기간이 2개월 더 길어서 기피 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타군과 차별되는 각종 혜택 부여’ ‘모병홍보활동 확대’ ‘예하부대 근무여건 및 장비 개선’ ‘인터넷 모병지원 기능 개선’ 등을 제시하였는데 해군군악대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그 개선된 이점을 부각시켜 모병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4) 군 별 선호도

만약 다시 지원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표 V-5> 군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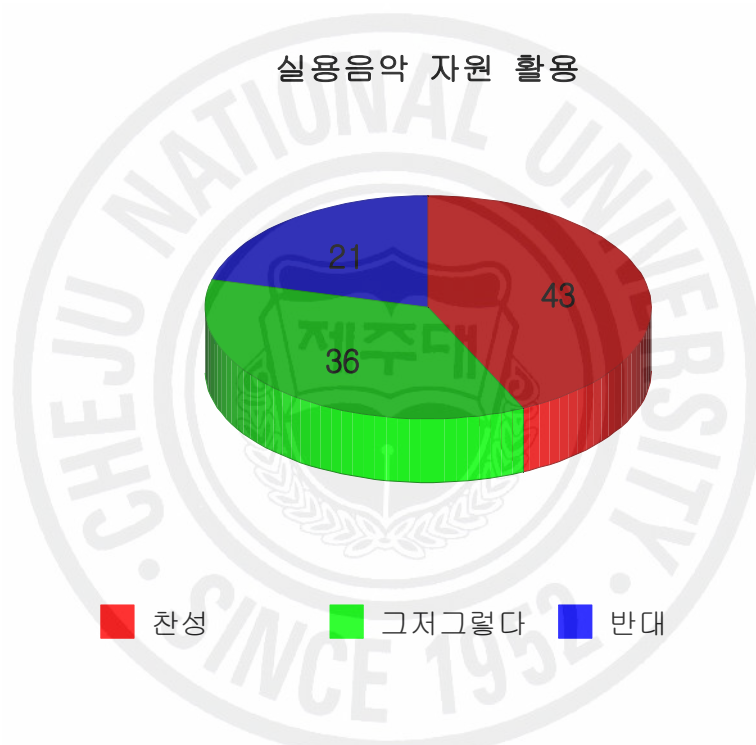
47% 즉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현재 복무하고 있는 해군군악대를 다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로 현재 복무에 만족하고 있고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꼽았다. 비록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경찰에 비해 2개월 길지만 현재 대원들이 해군군악대 생활에 만족하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군 중에서는 경찰악대가 33%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근무환경이 좋고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5) 실용음악 자원 활용

현재 군악대에서는 희소악기의 인력충원을 위해 군악대 내 캄보밴드로 운영되고 있는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1인 2악기 습득을 통해 행사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원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V-6> 실용음악 자원 활용



4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이유로는 어쩔 수 없이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21%의 반대의견은 주로 실용음악 전공 자원들로 생각되는데 희소악기 인력충원을 위한 1인 2악기 습득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전공악기 연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3. 군악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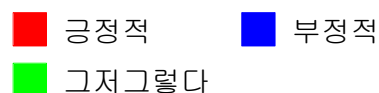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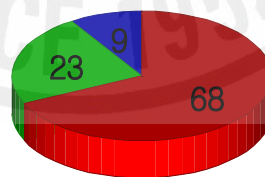
1) 행사 및 연주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 전입 후 행사에 제대로 투입되기까지 걸린 적응 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5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적응이라 함은 기본적인 의식 행사곡을 비롯한 각종 행진곡의 연습 및 암기, 행사시 제식동작의 숙지 및 훈련, 행사복 관리 등으로 생각된다.

군악대 연간 행사횟수는 적게는 100-200건, 많게는 400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연주회 횟수는 적게는 1-5건, 많게는 20-30건으로 조사되었다. 행사의 횟수는 각 부대마다의 지리적, 부대 운영 사정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군악대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연주회가 주는 효과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표 V-7> 연주회의 홍보 효과

연주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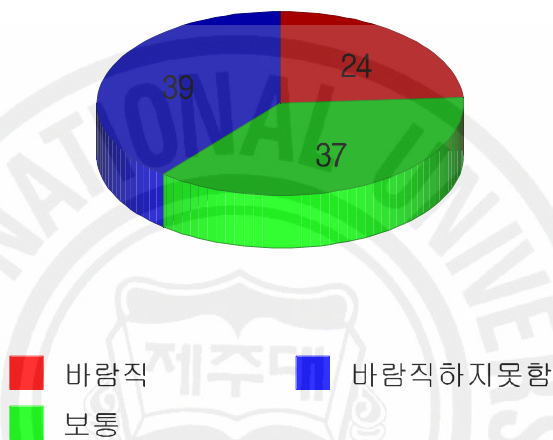
연주회의 홍보 효과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68%)이었다. 일반시민들의 해군에 대한 이미지개선은 물론 지원희망자에게 해군군악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견이다.

2) 군악업무 운영실태

각 부대에서 군악업무가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표 V-8> 군악업무 운영실태

군악업무운영



현재의 군악업무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37%), 바람직하지 못하다(39%)에 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부정적인 의견의 대다수는 각종 작업으로 인한 연습의욕저하 및 자원부족, 과도한 행사지원 이었다. 부대마다 운영체제가 다르지만 예하부대의 경우 군악업무 이 외에 많은 작업과 훈련에 동원되어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것은 물론 대원들의 개인연습에도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외부강사 초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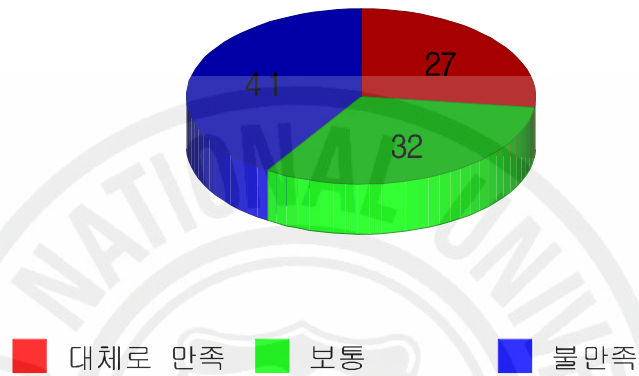
현재 해군지원부 군악대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대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하부대에도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다(78%)라고 답하여 정기적인 렛슨이나 클리

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대시설 만족도

<표 V-9> 부대시설 만족도

만족도



현재 군악대 각 부대마다 갖추어져 있는 시설로는 합주실, 앙상블실, 개인연습실, 행사피복 정비실, 악기실 및 악보실이 있으며 해군지원부 군악대에는 녹음실도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 27%, 보통 32%, 불만족 41%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연습실(개인연습실)의 부족 즉 인원수 대비 연습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음시설의 부재를 들었다.

4. 군악교육대 운영

현재 해군군악대에서는 전 군중 유일하게 군악교육대를 운영하고 있어 기초 군사학교를 수료한 신병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음악이론, 시창, 사보, 전공실기, 행진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시대에 발맞추어 사보수업을 수기사보 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사보 교육까지 함으로써 실무에서 혹은 전역 후에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교육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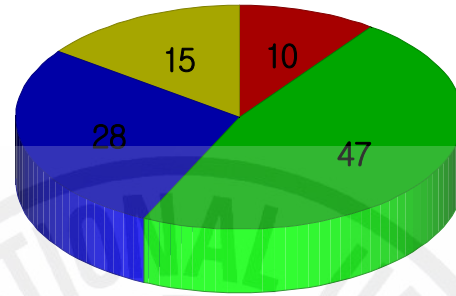
2007년 현재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기간은 8주로 시행중이다. 이에 대한 대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현 시행대로 8주가 53%, 6주가 38%로 나타났다. 후반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78%로써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현 시점에서 군악교육대는 운영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선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후반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74% 찬성하였다. 복무기간의 변화에 따라 교육기간은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 자체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실무에서 필요한 제반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무기간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 후에 후반기교육은 그 기간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표 V-10> 복무기간 단축 후 하반기 교육기간

교육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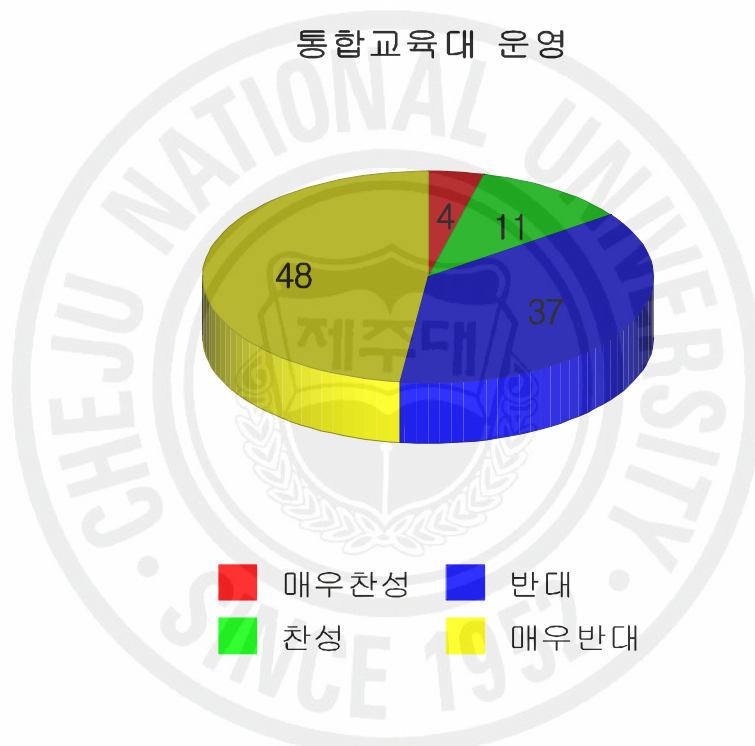
■ 2주 ■ 4주 ■ 6주 ■ 8주

대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기간은 4주(47%)였다. 그 밖에 6주(28%), 8주(15%), 2주(10%) 순으로 나타났다. 군복무가 점차 단축되는 이 시점에서 해군 군악교육대는 현행 8주의 교육을 더 짧은 기간에 내용과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3군 통합 교육대 운영

현재 해군에만 있는 군악교육대를 육, 해, 공군의 3군을 통합하여 군악교육(초등과)을 실시하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V-11> 3군 통합 교육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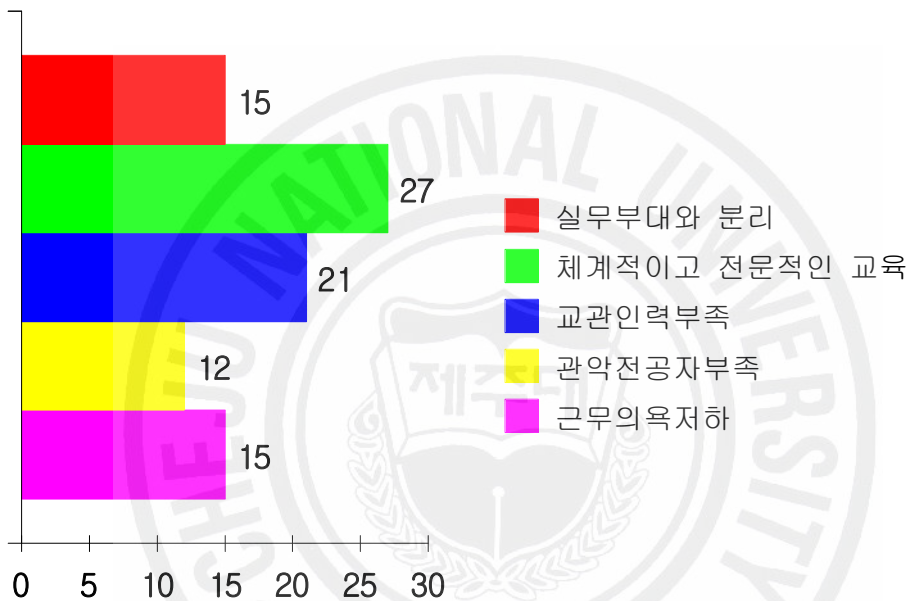


부정적 의견(85%)이 압도적인 가운데 15%의 찬성의견으로는 ‘각 군 간의 통일된 교육과정으로 인한 유대감 형성’ ‘현재와 다른 후반기 교육 분위기’ 등이 있었고 반대의견으로는 ‘각 군마다의 전통과 개성 때문에 통합교육은 힘들 것 같다’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군만의 연대감이 사라진다’ 등이 있었다. 후반기 교육이 단순한 음악이론이나 체반지식의 교육이 아닌 소속감과 연대감을 부여하는 정신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군악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설문응답이다.

<표 V-12> 군악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



전문적인 교관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원이 상당수(48%)였다. 교육생들 대부분이 최소 고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이고 대부분이 음악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실무부대와 교육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교육생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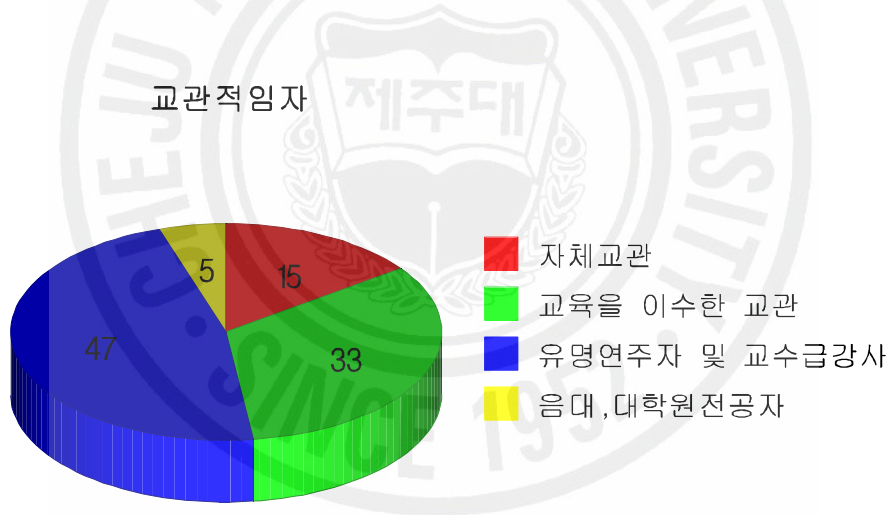
또한 고등학교 밴드부의 쇠퇴로 인한 관악전공자 부족현상으로 실무배치에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충분한 예산확보로 복지향상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모병인원의 판별력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인력

을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후반기 교육내용이 실무 생활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응답은 긍정이 36%, 잘 모르겠다가 40%,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4%로 나타났다. 후반기 교육에서 실무에서의 행사투입을 대비하여 의식 행사곡, 행진곡 암기를 비롯해서 실무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실용적이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생의 학력증가에 따른 교육내용의 수준조정을 생각해 볼 때 일차적으로 교육생들을 지도하는 교관 및 강사로 적합한 사람을 조사해 보았다.

<표 V-13> 교관적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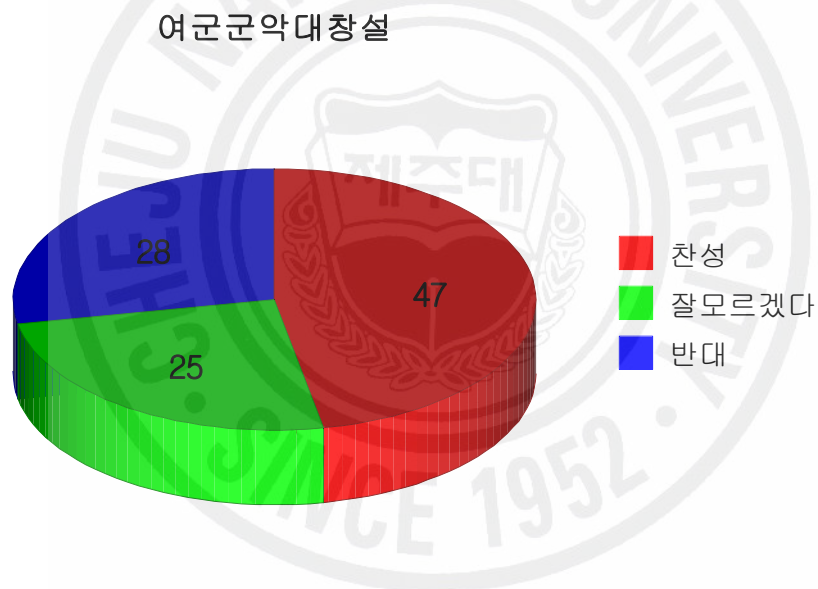


<표 V-13>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명연주자 및 교수 급 강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47%) 그 다음으로는 인가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관이(33%)였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강의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여군군악대 창설

군악대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음대 전공생과 고교밴드부에서 남성이 줄어들어는 반면 여성자원이 많아지고 있다. 군대라는 특성상 남성자원을 더 필요로 하지만 우수한 여성자원들을 활용한다면 해군 여군부사관 군악대를 창설할 수 있다. 여군군악대에 대한 주안점으로는 우선 필요성, 지역, 역할을 들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4> 여군군악대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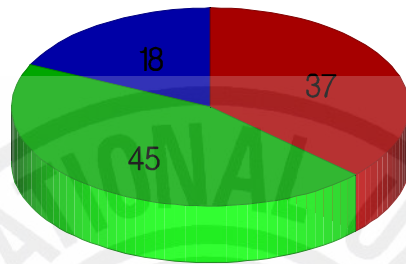


우선 창설 여부에 대해서는 47%가 찬성, 28%가 반대, 2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우수한 여성자원을 활용하여 군악대의 이미지 개선과 대민홍보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찬성의견의 대부분이었고, 운영상의 어려움, 군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이 반대 의견이었다.

여군군악대를 운영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해군지원부(35%)로 나타났다. 역할이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때 본부가 가장 적임지라고 생각된다.

<표 V-15> 여군군악대의 역할 및 성격

여군군악대 역할



■ 국가적 홍보사절단 ■ 군내의식행사지원
■ 국내외 연주지원

군내의 의식 및 의전행사지원보다는 국가적 행사, 연주에 지원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고 응답했다. 외국과의 국가적인 행사에 파견되는 홍보사절단이나 제주국제관악제 및 강원 원주따뚜, 진해 국제 군악. 의장 페스티벌 등 국내외의 큰 행사에 지원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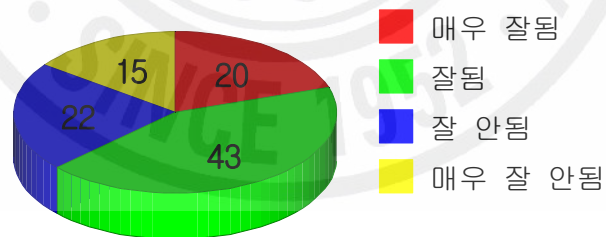
6. 군가교육

군가는 군기를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훈련소에서도 군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반기 군악교육대에서도 군가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가교육은 올바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무 배치 후 각 부대에서는 군가가 얼마나 제대로 보급되어 있고 불리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1) 후반기 군가교육 실태

<표 V-16> 군악교육대의 군가 교육 실태

군가교육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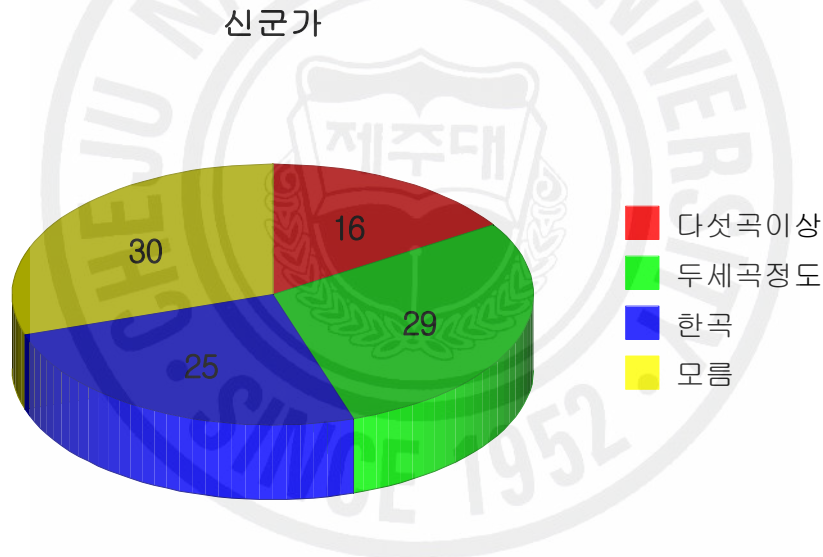


훈련소의 구전에 의한 비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 성악 병에게 지도를 받으며 정확한 악보로 배우는 후반기 교육대에서의 군가교육에 63%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말했다.

2) 군가에 대한 지식

현재 각 부대에서의 군가보급실태를 살펴보면 잘 안되어 있다가 47%, 잘 되어 있다가 53%로 나타났다. 잘 되어있는 부대는 성악 병의 지도에 의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가가 거의 생활화되어있는 것이 올바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개개인이 군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배워야 한다. 장병들의 군가에 대한 관심을 설문을 통해 조사해보았다.

<표 V-17> 알고 있는 신군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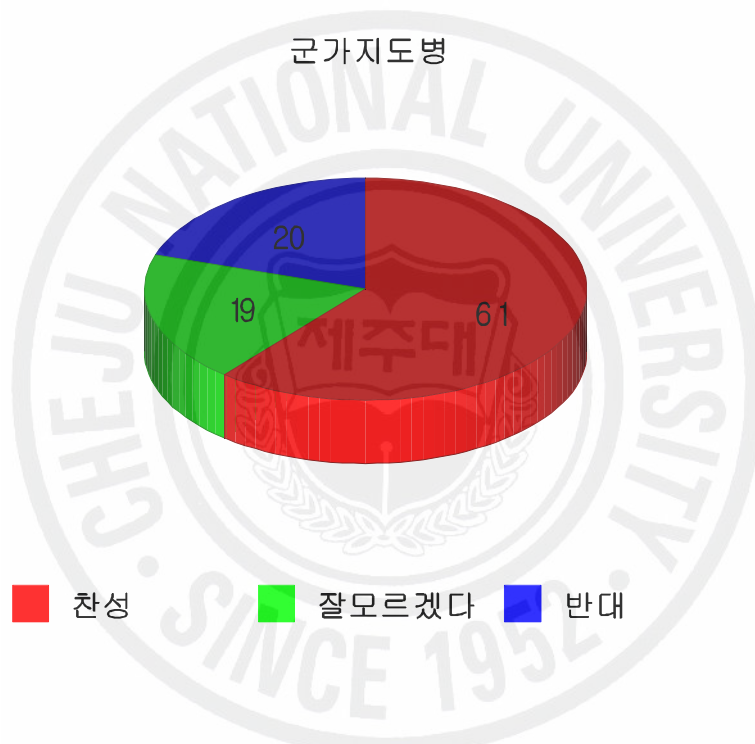
다섯 곡 이상 알고 있는 대원은 16%인데 반해 한곡을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대원이 55%에 이른다. 이는 신군가 보급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군가보급의 문제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전반적인 관심의 부재'였다. 군가 자체에 장병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지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3) 성악병(군가 지도병) 활용

신병훈련소, 부사관학교 및 사관학교에 군가 성악병(군가 지도병) 인가를 내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표 V-18> 군가 지도 병 활용



61%가 찬성하였고 20%가 반대하였다. 신병훈련소, 부사관학교, 사관학교에 각 각 1-2명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반대 의견으로는 '녹음자료로도 충분할 것 같다' '성악병(군가 지도병) 혼자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 힘들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VI. 결 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해군군악 교육대의 운영을 중심으로 군악대 전반의 운영상 문제점, 모병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가장 큰 목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해군 군악대를 중심으로 한국 군악대의 근현대사를 먼저 알아보았다. 시작을 확실히 이해하고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발견되는 착오점과 문제점을 총 정리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전국 각 부대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문항별로 정리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22세의 남자가 가장 많았으며 음악경력이 짧게는 3-5년의 고등학교 관악대 출신자, 길게는 5-10년의 음악대학 재학생이었다. 지원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전, 동해, 진해, 제주 등 다양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전공을 살려 군대에서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3%의 대원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만족스런 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위의 대상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병제도와 만족도

현재의 모병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대답한 대원은 32%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5%,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23%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고교 관악대의 자원감소로 모병인원이 부족하여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병인원이 감소하는 원인은 단순히 고교음악의 축소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모병자원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모병 홍보 활동이 부족했고 복무기간이 길고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미지를 개선 시킬만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현재 복무자의 군별 선호도는 해군, 경찰, 육군, 공군 순으로 나타났는데 해군 관악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이라 부대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악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설과 혜택, 짧은 복무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모병인원의 감소로 인한 행사인원 부족현상에 현재의 대응방안은 실용음악 자원을 활용한 1인 2악기 습득이다. 43%가 찬성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반대의 의견은 반강제적이고 전공악기에 대한 연습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했다.

2) 군악대 운영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전입 후 행사투입까지 걸린 적은시간은 3-5개월로 집계되었다. 기본 의식곡 및 행진곡의 숙지, 행사 제식동작 등의 교육기간으로 생각된다. 연간 행사횟수는 각 부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100-200건, 많게는 400-500건으로 알려지며 연주회횟수도 1-5건, 20-30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군악대 홍보 및 모병자원 확보에 연주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군악대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홍보이므로 연주회를 적극 활용하여 대민 이미지 개선을 통한 모병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의 군악업무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 응답이 37%, 바람직하지 못하다 응답이 39%에 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군악업무와 상관없는 작업과 집합, 근무 등이 원인이 되어 개인연습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갖추어진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만족 27%, 보통 32%, 불만족 41%로 불만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연습실(개인연습실)의 부족 즉 인원수

대비 연습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음시설의 부재를 들었다.

3) 군악 교육대 운영

군악교육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후반기 교육대 교육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실무에서 행사 투입 시 필요한 제반지식을 배우기 때문이고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해군군악대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 연대감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무기간 단축 후 교육기간은 4주(47%), 6주(28%), 8주(15%), 2주(1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8주로 운영하고 있는 군악교육대 교육과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기간은 축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군 통합 교육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각 군마다의 전통과 개성이 달라서 무리가 있다, 각 부대마다의 연대감이 사라진다,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군악교육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관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48%였다. 그리고 교육생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고등학교 관악대의 쇠퇴로 인한 관악전공자 부족현상으로 실무배치에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원자들의 학력과 교육수준에 발맞추어 군악교육대도 그 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게 보완해야한다. 이 시점에서 대원들이 생각하는 교관 및 강사 적임자는 유명연주자 및 교수 급 강사(47%), 인가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관(33%)이었다.

4) 여군군악대 창설

군악대 모병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자원을 활용한 해군 여군 부사관 군악대의 창설에 대해 응답자중 47%가 찬성, 28%가 반대로 나타났다. 우수 여성자원을 활용, 군악대 이미지개선과 대민홍보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찬성의견의 대부분이었고, 운영상의 어려

음, 군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이 반대 의견이었다.

여군 군악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로 군내 의식 행사 투입보다는 국제 외교사절단 혹은 국내 . 외 연주행사에 참여하여 해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의견이 모였다.

5) 군가교육

각 군부대에서 군가가 얼마나 보급되고 사랑받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훈련소의 군가 교육은 구전을 통한 비전문적이고 부정확한 교육이지만 군악교육대 후반기 교육의 군가교육은 전문 성악병을 통해 정확한 악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군가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여 군가를 잘 모르고 있으며 보급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좀 더 체계적인 훈련소 군가교육을 위해 성악병을 군가교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하였고 20%가 반대하였다. 신병훈련소, 부사관학교, 사관학교에 각각 1-2명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반대 의견으로는 ‘녹음자료로도 충분할것다’ ‘성악병 혼자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 힘들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주안점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군악대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병인원의 부족이었다. 모병인원의 부족은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총체적 결과이며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군 외의 상황으로 고등학교 관악대 활동의 축소와 함께 전공자가 감소하고 있다. 군악대모병의 가장 직접적인 자원인 20-23세 남자의 비율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 내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대원들의 근무여건을 들 수 있겠다. 모병지원자의 상당수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지원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현재 복무하고 있는 대원들은 앞으로의 지원자에게 군악대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원들이 생활에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의 확충을 비롯한 외적인 근무여건 개선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군군악대의 자랑인 군악교육대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전공과 특기를 살리고 싶어 군악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군대에 와서도 대학수준의 음악교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교육에서의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군별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더 직접적인 홍보와 대민 이미지개선을 위한 연주회 적극 활용, 군가보급을 통한 군대 음악의 자연스러운 전파, 우수한 여성 자원을 활용한 여군군악대 창설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군악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아마추어 음악이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군악대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모병하여 군악대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악대 모병 및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복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악대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모병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열악한 시설들을 개조 . 보수는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원배분을 통해 무리한 행사지원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내부에서부터 차별화되는 확실한 복지시설 혜택이 보장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병대상자들은 해군군악대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 모병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 모병홍보는 정작 중요한 모병자원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고교 관악대, 음악대학, 민간 관악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모병홍보도 더욱 강화해야한다. 각 단체 및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활성화 하고 지원방법도 좀 더 전산화 된 간편한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대 운영을 재정비해야한다.

지원자들의 학력이 최소 고졸 높게는 대학교 졸업자까지 전반적으로 고학력 추세이다. 군악대지원의 가장 큰 동기가 특기와 적성을 살린 군 생활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원자들은 군 생활 중에도 대학수준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

해군 군악 교육대는 3군중 해군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로서 해군의 자라이며 지금의 해군 군악대를 있게 한 초석이다. 제반지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해군 군악대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군악대자원 교육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변하는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수한 자원은 계속 선발되는데 그들을 교육시킬 교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체계적인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예산의 확보와 교관 정규과정을 만들어 인증된 교육을 마친 정식 교관을 배출해 내야한다. 그리고 유명 연주자나 대학교수급 강사들을 초빙하여 전공실기 랫슨이나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군악교육대의 우수한 군악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 시행 8주 과정을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6주나 그 이하로 줄여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8주는 실무 복무기간을 생각해볼 때 너무 길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기간을 줄이면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수한 교관의 편성,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재, 그리고 교육생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현재 군악교육대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군악교육대가 한층 더 발전한다면 모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넷째, 우수한 여성자원의 활용이다.

음악대학교 재학생의 비율만 봐도 여성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반대로 여성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훨씬 더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군 여자 부사관 군악대를 창설함으로써 현재의 모병자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행사지원과 대민홍보, 군사외교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홍보의 효과는 가장 근본적인 모병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섯째, 군가의 자발적인 보급이다.

현재 훈련소 군가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성악병이 담당하게 하여 정확한 군가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각급 실무 부대에서도 군악대 주도하에 군가를 보급하고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군가사랑은 군인의 사기고양은 물론 군대음악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서는 군악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양악사와 함께해온 군악대는 격동의 세월을 거쳐 오늘의 발전된 모습에 이르렀다. 그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군악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 내에서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의를 고취, 군 밖에서는 대중들에게 음악을 보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을 심어주었다. 오늘날 우리가 당도한 문제는 모병자원과 교육여건의 부족이다. 깊은 관심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대안을 세워 또 다시 변화하고 발전하는 군악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력 있는 자원들이 해군군악대에 입대해 더욱더 실력을 키워 나가서도 유명한 음악인이 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튼실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변화해나가자고 당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대한민국해군, 「군함도 외교를 한다」, 해군인쇄창, 2006.

육군본부, 「군악업무」, 육군인쇄창, 2006.

음악대사전편찬위원회, 「음악대사전」, 신진출판사, 1972.

이만운, 「중보문헌비고」, 동국문화사, 1957.

이유선, 「한국양악 100년사」, 중악대학 출판국, 1976.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음재, 1985.

「한국음악사」, 세광출판사, 1988.

「옥당최남선전집」, 현암사, 1973.

해군본부, 「군악대 운용」, 해군인쇄창, 1995.

- 논 문 -

김수봉,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안인창, 「우리나라 BAND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유재훈, 「한국 군악대의 변천사에 관한 소고」,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장성근, 「한국관악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악인총연합회, 1999.

전용길, 「한국브라스밴드의 현실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진섭, 「Franz Eckert가 한국 군악대 형성에 미친 영향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기 타 문 헌 -

이양희, 해군사관학교 교무처 자료, 2007.

해군군악대 회의안건 자료, 2006.

해군 군악교육대 업무보고, 2007.



국문초록

우리나라 관악 역사의 시초는 군악대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군악대는 한국 브라스밴드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군 장병의 사기진작, 군내 . 외 각종 의식행사지원, 외부적으로는 매년 순회연주를 통한 군 이미지 개선,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려 왔다.

하지만 중 . 고등학교의 입시추세의 변화로 인한 관악대 활동 위축, 그로인한 음악전공자 감소 등 많은 상황적 악재로 인해 현재 모병자원의 부족현상까지 겪고 있으며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해군군악 교육대의 운영을 중심으로 군악대 전반의 운영상 문제점, 모병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가장 큰 목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현재의 운영실태와 근무환경을 이해하고 그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위해 전국 해군 . 해병 군악대의 203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군악대 모병 및 교육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악대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모병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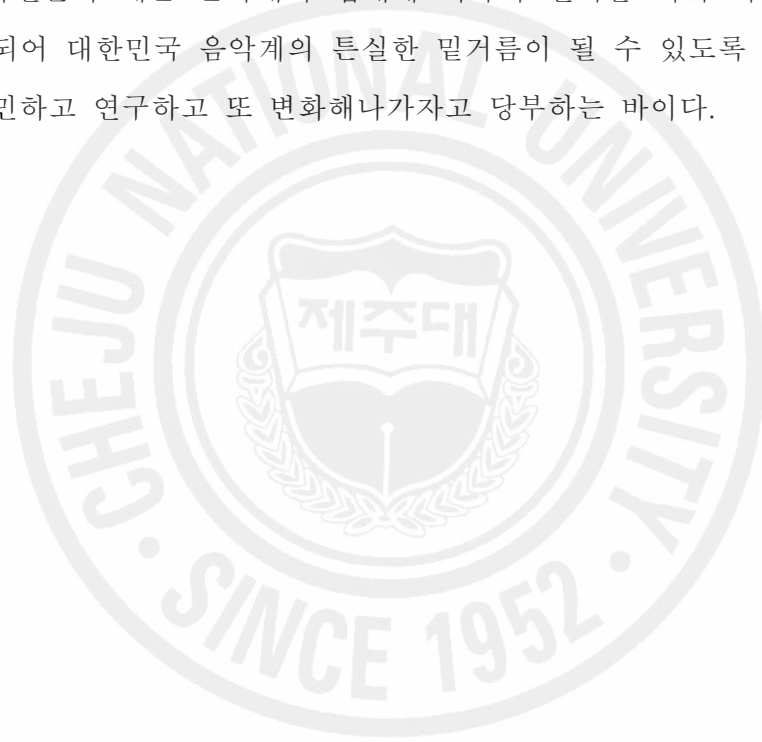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모병홍보와 고등학교 관악대 및 민간 관악단체, 대학교 음악학부 등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관계를 통해 모병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군악대지원의 가장 큰 동기가 특기와 적성을 살린 군 생활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원자들은 군 생활 중에도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 운영을 재정비해야한다

넷째, 우수한 여성자원의 활용이다. 해군 여자 부사관 군악대를 창설함으로써 현재의 모병자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이러한 홍보의 효과는 가장 근본적인 모병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섯째, 군가의 자발적인 보급이다. 훈련소 군가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성악 병이 담당하게 하여 정확한 군가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논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당도한 모병자원과 교육여건의 부족이라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깊은 관심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대안을 세워 또 다시 변화하고 발전하는 군악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력 있는 자원들이 해군 군악대에 입대해 더욱더 실력을 키워 나가서도 유명한 음악인이 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든실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변화해나가자고 당부하는 바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Bands
-Focused on R.O.K. Navy Bands-

Bin, Dae-wook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The origin of Korean wind music came from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band. Therefore, Korean military bands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n brass bands in its history and are changing and developing, going with the flow. Military bands are doing a lot of activities including, internal events to promote soldiers' morale, various ceremonies in the military and external promotion of Korea's image, performance for public to improve the image of the military, support to establish many musical organizations, and has been propagandized for its importance.

However, the bands of middle, high schools have been declined due to the changes of entrance examination and only a few students' major is music. Accordingly, there is lack in the resources of recruitment by the bad situation and Korean military

bands have difficulty managing the band smoothly.

With this backdrop, the study started to find alternatives,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recruitment and general problems, and focused on managing the training centers of the navy bands. The final goal was to suggest a basic index to improve and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o 203 soldiers of the navy, marine bands nationwide to seek for effective alternatives based on understanding working environments and the reality of management at the moment. As a result,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of training centers and recruitment were suggested as below.

First, social activities of current bandsmen in a military band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to recruit new bandsmen, and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of service condition, preparing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will help bandsmen to concentrate on their duty without feeling inconvenient.

Second, there should be more systematic execution for recruits by using the Internet and cooperating with organizations like high school bands, public wind ensemble groups, and university music schools.

Third, the management of training centers should be re-organized for soldiers to receive university-level education, considering that the biggest motive of application for a military band is to use and develop their talent and aptitude.

Fourth, excellent women resources should be adopted. The establishment of the women navy band will partly solve the lack of

resources. In addition, it will bring an effect to promote fundamental issues of recruitment.

Fifth, a war song should be spontaneously popularized. A soldier who is an expert on teaching war songs should educate recruits in a boot camp, which is an opportunity for soldiers to receive accurate war song education.

The paper proposed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resources of recruitment and education condition at present. In the future, we need to set up better alternatives, considering the problems with deep concern and a variety of viewpoints. It is expected that Korean military bands will continuously and voluntarily study and change to be the stubborn foundation of Korean music, as talented soldiers can learn more things about music in the bands and finally can be famous musician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military bands.